2016년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 이사월호

## Contents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북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공청회 시행 2

1차 종이접기 자조모임을 가지며..... 4

4.19 혁명 국토문화제 전야제 참석 6

"2016 실무자 엠파워먼트 특강" 수강 후 8

4.13총선 당별 장애인공약들 10

강북센터 새로운 식구를 소개합니다. 12

장애인 에티켓-발달장애인과 대화하기 13

이달의 정보 15

이달의 시 17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19

광고 20


발행처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행인 : 정종남 편집 : 편집위원 발행일 : 2016년04월30일
http://www.kbcil.co.kr 전화 : 908-7776 팩스 : 0303-0799-1758
서울시 강북구 번동 446-13 가든타워 1119호

# 자치법 제정-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 ['강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공청회 행사']

문지수

4월 15일 14:00-17:00, 미아동 주민센터 내 2층 강의실에서 저희 강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한 강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공청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나를 포함한 직원들은 자료집, 물품 점검 등 하면서 미아동 주민센터 내 2층 강의실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센터 행사 중 하나인 공청회 행사 준비 하느라 바삐 움직였다.

공청회 행사의 사회자 역할이 나라서 긴장이 되었으나 말문을 열었다. "잠시 후 강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공청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자리에 착석해주시길 바랍니다."공청회 행사의 막이 열렸다. 오늘 공청회 행사 패널이신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상임 위원장님, 강북구의회 조례연구회 위원이자 행정보건위원장 구본승 위원장님, 피노키오 자립생활센터의 정만훈 소장님, 그리고 저희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허성현 기획팀장님 등으로 구성하여 그들을 중점으로 진행되었다.

공청회 행사 목차로는 역대 강북구 장애관련 조례(김도연 상임위원장님), 서울특별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진행상황(구본승 위원장님), 조례제정의 효과 및 향후방향(정만훈 소장님), 강북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방향(허성현 기획팀장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현황 이 순서다. 역대 강북구 장애관련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현재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을 이용해서 강북구 인수봉로 291(인수동)에 위치한 지상5층 건물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7월 중 개관 예정이라고 하셨다. "강북구청과강북구의회에서는 약 17,200여명의 강북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편익을 위한 정책 시행을 위해 장애 관련 조례 제정 등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진행사항에 1)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추진 경위,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비교(의원발의 1차안/ 센터 의견/ 구청 의견)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여 서면 질문, 서면 답으로 하여 설명해주시고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의원발의 1차안, 센터 의견, 구청 의견으로 나눠 설명해주셨다. 조례제정의 효과 및 향후방향으로는 그 중 동대문구 IL조례제정의 효과가 5가지로 구성된다. ①IL센터 지원, ②활동보조서비스지원, ③동료상담지원, ④체험홈지원, ⑤주거서비스지원

"우리가 현 시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정책적으로 단계적 지원 로드맵을 그리고 시스템 구축으로 같은 사회에 살고 있지만 다른 문화적 충격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다각도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바람직한 것은 지역사회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셨을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강북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 방향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기주도적인 삶을 실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자치법 제정의 목적이므로 자료집에서 있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표로 작성된 부분과 같이 봐주면 이해하기가 더 쉽다.

"강북구청장의 행적적인 지원과 예산지원 등 책무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현황에서 2014년도 기준으로 분석하니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책상 위에 만족도 조사지를 미리 배분한 상태에서 만족도 조사 체크 부탁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사진촬영을 끝으로 행사가 끝났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의견들도 들을 수 있는 점이 있어 좋았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것 또한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전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어려워하는 장애인분들을 자주 목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 반영하여 조례가 잘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1차 종이접기 자조모임을 가지며…….

김소연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자조모임- 드림팩토리 중 종이접기 자조모임을 강북센터 프로그램 실에서 첫 모임을 4월 4일 11시부터 1시까지 가졌다.

이날은 종이접기 자조모임 첫 모임이기도 하여 정종남소장님, 박계형팀장님, 문지수간사님, 이하 종이접기 자조모임에 회원인 나를 포함하여 이은숙씨와 정미옥씨, 그리고 김승이씨가 참가하여 자기소개 및 인사와 앞으로 종이접기 자조모임을 진행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회장선출과 방향성을 잡는 시간을 가졌고, 종이접기 자조모임의 회장은 이은숙회원님이 되셨으며, 앞으로 매달 둘째 주, 넷째 주에 강북센터 프로그램 실에 모여 종이접기 자조모임을 가지기로 결정하였다.

첫 모임이긴 하지만 저를 비롯한 회원 분들에 종이접기에 대한 강한 애정으로 우리는 첫 작품으로 컵받침을 만들기로 결정하여, 각자 마음에 드는 색상의 색종이를 골라 컵받침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회원 분 중서에는 손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계셔서 종이접기를 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으나 나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접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나도 모르는 다른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나는 또 한 계단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우리들은 열심히 색종이로 컵받침을 접었고, 어찌나 열심히 접었는지 점심시간이 오는지도 몰랐다. 뭘 먹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사무실과 가까운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사

와 먹기로 결정하고 제일 막내인 내가 사와야 될 것만 그런 분위기랄까……? ㅎㅎ 어쨌던 햄버거를 맛있게 먹은 후 다시 심기일전하여 오전에 다 완성하지 못 한 컵받침을 마저 만들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완성한 컵받침~~!! ㅎㅎ

종이접기 자조모임에 첫 번째 작품인 컵받침이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놓인 걸 보니 왠지 감회가 새로웠다. 뿌듯한 느낌이랄까……^^? 완성된 컵받침의 인증 샷을 남기기 위해 좀 더 멋있는 각도를 잡아보기도 하고 나를 포함한 종이접기 자조모임 회원들은 조금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그렇게 인증 샷을 찍고 우리는 다음 2차 모임을 4월 22일에 갖기로 하고 1차 종이접기 자조모임을 아쉬움과 설레는 마음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가진 자리인지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설픈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던 하루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다음 2차 모임은 미리 준비하여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조금 더 일찍 준비물 등을 준비하고 뭘 만들지도 생각해 두어야겠다는 걸 느꼈던 하루였다.

드림팩토리- 종이접기 자조모임에서 만든 첫 번째 작품인
'컵받침'

# 집단자립생활프로그램 지역문화체험

박계형

이번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은 4월 18일 4`19민주혁명국민문화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4`19혁명 국민문화제'에 참여하였다.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국민들의 무관심속에 잊혀 져 가고 있는 4.19혁명의 정신을 되새기고 단순한 기념식을 벗어나 계층과 세대를 초월하여 많은 시민들이 하나가 되고 4·19혁명 그 때를 되돌아보며 4·19이념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2013년에 시작으로 2016년 올해로 벌써 4회를 맞이하는 강북구에 대대적인 문화행사이다.

4·19혁명국민문화제는 수준 높은 문화 공연과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전시 체험을 통한 화합의 장이 마련되어있어서 4·19이념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문화제이다. 이에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에서도 회원 10여명과 함께 다양한 문화공연을 체험하고 여러 사회활동을 함

으로서 자립생활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4`19혁명 국민문화제'의 전야제에 참여하였다.

전야제 행사로는 태극기를 태마로 한 태극기 태마 존에 참여하게 되었고, 강북센터의 회원 분들은 각자 태극기를 들고, 휠체어에 매달기도 하며 4`19정신을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 이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도 많은 구민들이 나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우리 센터의 참여자들도 오랜만에 나들이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바람이 많이 부는 탓에 회원들이 감기에는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참가자 10명 모두 뜻 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번 집단자립생활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집단자립생활프로그램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 교육

## ['실무자 임파워먼트 특강']

문지수

4월 1일 14:00-18:00, 여의도 이룸 센터 내 이룸 홀에서 관악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에서 주관한 실무자 임파워먼트 특강을 개최하였다.

나를 포함한 9명이서 그곳에서 특강을 듣게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쪽 선생님들과 같이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과 비영리 단체 실무자 회계 기본 교육 및 문서 관련 교육을 중점으로 특강 교육이 진행되었다.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정종화 강사 선생님(교수)께서 세분화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사업계획서의 구성과 내용에는 신청기관정보, 대표자, 고유번호, 전화, 팩스, 홈페이지, E-mail, 설립 년 월 일, 주소, 기관 특성, 운영법인 또는 단체정보, 사업기본정보 등 구분하여 목적, 목표, 대상,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진행 일정, 업무 담당, 예산 구성해야한다.

사업 개요로는 목적, 목표, 대상, 세부프로그램 (목표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진행 일정, 업무담당, 예산 등 구성하여 거기에 주요 내용들로는 1) 기관명, 2) 서비스 대상, 3) 클라이언트 수, 4)서비스 단가, 5) 투입인력, 6) 사업 목적, 7) 성과목표, 8) 주요 사업내용 요약, 9) 예산 10)신청금액의 세부내역으로 하되 사업명을 구성할 때 필요에 따라 사업명 외에 부제를 달아서 경쟁력 있는 제목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고 하셨다.

일반 집단, 위험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 등 설명해주시며 서비스 지역, 서비스 대상 및 클라이언트 수 작성방법을 알려주시고 그에 관한 예시 문을 보여주셨다.

"'연간사업계획서 프로세스 案',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 세 번……. 여러 번 재차 강조하셨다. 그 만큼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강조하시며 열렬하게 강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다. "나중에 이거 복사해서 책상 위에 붙여 놓으세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중간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어서 많이 힘들진 않았다, 허성현 팀장님,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과자나 커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다.

장원택 강사 선생님(공인회계사)께서 비영리 단체 실무자 회계기본 교육 및 문서 관련 교육을 하는데 회계 목적, 비영리법인의 유의점 등 알려주셨다.

"과세랑 면세 차이점이 있어요,
알아두시는 편이 좋아요. 세금계산서에서 검게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이 부분이 검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또한 알아둬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18:00 (6시) 에 특강이 끝난 이후, 처음에 들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강사 선생님들께서 예시와 같이 설명해 주시니 이해하기가 쉬웠고 다음에도 이에 관련된 특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한 들었다.

# 강북센터의 새로운 식구가 된 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북센터)의 선생님 여러분.

2016년 04월 01일부터 강북센터에서 새롭게 일 하게 된 '문지수', 라고 합니다.

비록 전 前 직장이 노인복지 관련된 직장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장애복지에 관하여 좀 더 알고 싶기 때문에 강북센터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취업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이 곳 강북센터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비록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를 강북센터의 한 직원이자 가족으로써 뽑아주신 강북센터의 소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단점 및 부족한 면은 강북센터의 선생님들께 배워서 보완하고 장애 복지에 대해 알아가며 저 자신을 성장시키고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이지만 한층 성장하며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장애인 에티켓

## [발달장애인과 대화하기]

전난희

발달장애인은 '나, 너'의 개념은 있으나 표현에서 "나", "너", "우리" 등의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의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고 상황과 문장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 손으로 누군가를 지시하거나, 대상지시 없이 "빵 먹어요"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생각이나 감정을 말 (특히 문장)로 표현하는데 미숙하므로 예를 들어 말해주고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질문 "너 왜 우니?" 라고 질문하면서 "슬퍼? 화나? 속상해? 어때?" 라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대답할 때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끝단어만 줄아하는 반향 어를 많이 사용하므로 "할까. 하지말까" , "하지말까, 할까"처럼 말의 순서를 바꾸어 2회 이상 확인하며, 그 말이 현재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지 추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농담', '상징', '비유'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대화에서 간결하고 확실한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또한 발음은 분명하고, 천천히 하며, 필요하다면 사진, 몸짓 등의 행동을 덧붙여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때때로 시간적으로 기회를 놓친 지연된 반향어로 대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상황 설명을 몇 분이 흐르거나 다른 상황에서 문득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넌 그 장난감을 가질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바라보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사실은 "나,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어요." 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표현이 잘 안 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행동을 유심히 살펴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지능저하가 함께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활연령에 어울리는 존칭어를 사용하여 한 특성을 가진 인간으로 상호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과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들도 비장애인과 함께 가야할 평등한 인격체임을 인정한다면 우리 모두 보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출처- http://disability.seoul.go.kr/lifeinfo/etiquette_view.isp?Depth=4611&idx=15&no=58#con

# 이달의 정보

## ITU,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통합정책 보고(Model ICT(창조경제정책) Accessibility Policy Report)를 발표하고, ICT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모델 제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정보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정보통신 접근성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는데요.

장애인의 ICT(창조경제정책) 접근성 관련 모듈별 원칙

1. 국가정책 법 규제에 장애인의 ICT(창조경제정책) 접근성 주류화 : 포괄적인 언어와 정의 및 규정 포함

2. 장애인 ICT(창조경제정책) 접근성 관련 신속한 해결방안 先이행 : (예) 모바일, TV 등 접근하기 쉬운 기기를 우선적 제공

3.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음성인식, TTS(Text-to-Speech) 인터페이스 등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설계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

4. 범국민 컨센서스 구축 및 디지털 통합정책 형성 : 공청회, 국가담화 및 토론 등을 통한 범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제고

5. 이행성과 관리를 위한 명확한 목표설정, 명백한 책임 위임 및 정기적인 보고 체계 확립

6. 장애인 인식제고를 위한 역량구축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사점

-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격차(6.6%p)는 감소하는 반면 전체 국민 대비 인터넷 이용률 격차(25.4%p)와 스마트폰 보유율 격차(34.4%p)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 유무선 융합 환경에서 장애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대국민 인식제고 노력 필요합니다.(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진흥원(NI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b2max/220656706953

##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최선은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이하 질본)가 31일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공개하고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따뜻한 봄 날씨에도 여전히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B형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질 본에 따르면 인플루엔자의 의사환자수는 지난 1월 14일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의사환자란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 통을 보이는 환자를 뜻한다.

의사환자수는 제11주(3월 6일~12일) 28.8명, 제12주(13일~ 19일) 30.1명, 제13주(20일~26일) 30.6명(잠정치)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공개한 것.

질 본은 65세 이상 노인 등 예방접종 권장대상자의 경우 예방접종을 받고 비누를 사용해 자주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했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휴지 등으로 입을 가리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하고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을 조언했다.

질 본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한다"면서 "특히 고위험군 환자는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적극적인 초기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vCode=0023&NewsCode=002320160331101100956016

# 깊은 슬픔

도종환

슬픔은 구름처럼 하늘을 덮고 있다
슬픔은 안개처럼 온몸을 휘감는다
바닷바람 불어와 나뭇잎을 일제히
뒤집는데
한줄기 해풍에 풀잎들이 차례차례 쓰러지듯
나도 수없이 쓰러진다
분노가 아니면 일어나 앉을 수도 없다
분노가 아니면 몸을 가눌 수도 없다
기도가 아니면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다

맹골도 앞 바닷물을 다 마셔서
새끼를 건질 수 있다면
엄마인 나는 저 거친 바다를 다 마시겠다
눈물과 바다를 서로 바꾸어서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엄마인 나는 삼백 예순 날을 통곡하겠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낼 수 있다면
바다 속에 잠긴 열여덟 푸른 나이와
애비의 남은 날을 맞바꿀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썰물 드는 바다로 뛰어 들겠다
살릴 수 있다면
살려낼 수 있다면

사월 십육일 이전과
사월 십육일 이후로
내 인생은 갈라졌다

당신들은 가만히 있으라 했지만
다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있는 동안 내 자식이 대면했을 두려움
거센 조류가 되어 내 자식을 때렸을 공포를
생각하는 일이 내게는 고통이다
침몰의 순간순간을 가득 채웠을
우리 자식들의 몸부림과 비명을 생각하는 일이
내게는 견딜 수 없는 형벌이다
미안하고

미안해서 견딜 수 없다
내 자식은 병풍도 앞 짙푸른 바다 속에서 죽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죽인 게
바다만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 참혹한 순간에도
비겁했던
진실을 외면했던
무능했던
계산이 많았던 자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자꾸 끊어지곤 한다
하느님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하고 묻다가
물음은 울음으로 바뀌곤 한다

이제 혼자 슬퍼하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함께 울겠다
파도가 다른 파도를 데리고 와
하얗게 부서지며 함께 울듯
함께 울고 함께 물결치겠다
함께 슬퍼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걸어다닐 수 있으랴
그들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위로 받을 수 있으랴

정작 잘못한 게 없는 많은 이들이
미안해하며 울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란 걸 안다
그들의 분노가 내 분노라는 걸 안다
그들의 참담함이 내 것인 걸 안다
이 비정한 세상
무능한 나라에서
우리가 침묵하면
앞으로 또 우리 자식들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노란 리본을 달고 또 단다는 걸 안다

내 자식은 병풍도 앞 짙푸른 바다 속에서 죽었다
오늘도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때린다
오늘도 눈물은 바닷물처럼 출렁이며 나를 적신다
한 줄기 바람에도 나는 나뭇잎처럼 흐느낀다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 ◈ 수납업체 및 목적 (수납업체 기재란) | | | |
|---|---|---|---|
| 수 납 업 체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수 납 목 적 | 회원회비 |
| 대 표 자 | 정종남 | 사업자등록번호 | 210-82-68864 |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905호 | | |

| ◈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 | | | |
|---|---|---|---|---|
| 신청정보 | 신청인 | 예금주와 관계 : ( ) | 연락처 | |
| | 납부금액 | □ 고정금액 ( 원)<br>□ 변동(추가 계약내용에 따름) | 납부일 | 매월 25 일<br>*미납시 일, 일 재출금 |
| 금융거래정보 | 은행명 | | 예금주 | |
| | 계좌번호 | | | |
| | 예금주생년월일 | | | |
| | 예금주<br>휴대전화번호 | | | |
| 개인정보 활용등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의 ◇<br>수집 및의 이용목적 : 효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br>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br>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등의일 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br>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br>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등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의 ◇<br>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에프엠에스㈜,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nc.co.kr/제휴사 소개 메뉴 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등의 사실 등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br>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 자동이체 동의여부 동의자 안내 : 효성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등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회비 납부를 위해 효성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16년 04월 회비납부 명단**

곽광현 곽삼봉 권윤정 김낙현 김두용 김석현 김소연 김숙이 김용자 김은미
김은순 김중민 김현실 박계형 박남주 박동열 박민숙 박시연 배소영 손연숙
안병훈 안혜영 예성호 오재준 우의정 유수근 윤두선 이경희 이승준 이영석
이영숙 이영훈 이지숙 이하용 이화선 임상욱 장민정 전난희 정종남 정주영
최양호 최윤숙 최창현 홍점표 황석재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 <너와 나의 연결고리>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동료상담가 양성교육은 2박 3일로 진행되며,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동료상담가에게 필요한 기술들을 교육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료상담가양성교육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양식**

http://www.kbcil.co.kr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신청방법**

이메일 : kbcil@hanmail.net
인터넷 팩스 : 0303) 0799-1758,
팩스 : 02) 908-7877

**문 의**

박계형 팀장
☎ 02) 908-7776
HP : 010-3781-5104

**기 간**

5월 2일 ~ 5월 4일(기초과정)
6월 13일 ~ 6월 15일(심화과정)

**장 소**

서울여성프라자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일정

| 과 정 | 날 짜 | 시 간 | 주 제 |
|---|---|---|---|
| 기초과정 | 5월 2일 | 13:00 ~ 13:30 | 등록 및 방배정 |
| | | 13:30 ~ 14:00 | 개회식 |
| | | 14:00 ~ 18:00 | NEW & GOOD, 관계 만들기 |
| | | 18:00 ~ 19:00 | 저녁식사 |
| | | 19:00 ~ 20:00 | 자립생활의 개념, 좋았던 것과 배웠던 것 |
| | 5월 3일 | 08:00 ~ 10:00 | 아침식사 |
| | | 10:00 ~ 12:00 | NEW & GOOD, 동료상담의 개념 |
| | | 12:00 ~ 13:00 | 점심시간 |
| | | 13:00 ~ 15:00 | 인간의 본질 |
| | | 15:00 ~ 15:30 | 휴식 |
| | | 15:30 ~ 17:30 | 장애에 대하여 |
| | | 18:00 ~ 19:00 | 저녁시간 |
| | | 19:00 ~ 20:00 | 감정해방 |
| | | 20:00 ~ 22:00 | 서포터그룹 만들기, 좋았던 것과 배웠던 것 |
| | 5월 4일 | 08:00 ~ 10:00 | 아침식사 |
| | | 10:00 ~ 11:00 | NEW & GOOD, 칭찬하기, 질의응답, 좋았던 것과 배웠던 것 |
| | | 11:00 ~ 12:00 | 수료식 및 폐회식 |
| 심화과정 | 6월 13일 | 13:00 ~ 13:30 | 등록 및 방배정 |
| | | 13:30 ~ 14:00 | 개회식 |
| | | 14:00 ~ 18:00 | NEW & GOOD, 관계 만들기 |
| | | 18:00 ~ 19:00 | 저녁식사 |
| | | 19:00 ~ 20:00 | 자립생활이란?, 좋았던 것과 배웠던 것 |
| | 6월 14일 | 08:00 ~ 10:00 | 아침식사 |
| | | 10:00 ~ 12:00 | NEW & GOOD, 동료상담의 실제 |
| | | 12:00 ~ 13:00 | 점심시간 |
| | | 13:00 ~ 15:00 | 인간의 본질 |
| | | 15:00 ~ 15:30 | 휴식 |
| | | 15:30 ~ 17:30 | 감정해방 |
| | | 18:00 ~ 19:00 | 저녁시간 |
| | | 19:00 ~ 20:00 | 역할극(Role play) |
| | | 20:00 ~ 22:00 | 신뢰에 대하여, 좋았던 것과 배웠던 것 |
| | 6월 15일 | 08:00 ~ 10:00 | 아침식사 |
| | | 10:00 ~ 12:00 | NEW & GOOD, 리더십에 대하여, 질의응답, 좋았던 것과 배웠던 것 |
| | | 12:00 ~ 13:00 | 수료식 및 폐회식 |

※ 위 일정은 센터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및 주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TEL. 02-908-7776 FAX. 0303-0799-1758 E-mail. kbcil@hanmail.net http://www.kbcil.co.kr